

<서평>

Inspiration and Incarnation. Evangelicals and the Problem of the Old Testament

Peter Enn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208p.

김근주*

1. ‘영감’과 성경

성경의 “영감(inspiration)”은 한국 교회가 좋아하는 말 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단어이다.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구약 교수로 있는 피터 엔즈의 책 *Inspiration and Incarnation*은 “영감”이라는 단어를 제목에 지니고 있어서 영감에 대해 강조하는 수많은 책들 중의 하나라는 첫인상을 주지만, 처음 몇 페이지를 읽어나가면서 흔히 이러한 제목 아래 기대되는 내용인 유기적 영감이니 기계적 영감이니 혹은 독자 영감이니 하는 뜬금없는 개념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책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매력으로 독자를 사로잡는다.

저자는 여러 증거 자료들의 분석을 통해 전통적 교리의 틀 안에서 까다로운 성서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내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교수, 구약학

숙고가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새롭게 하기를 기대하고 있다(p. 15). 즉, 그의 주된 관심은 한마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성경관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만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듯한 고고학적 발견이나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성경의 부분들을 대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난처함을 성경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봉합하지 않고, 이를 포괄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신학적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과 연관해서 가지는 당혹스러움의 대부분은 성경 자체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기보다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문제가 아니라 대개의 경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우리의 선입견이 문제인 것이며, 저자는 이러한 선입견을 버리고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찾기 위해 저자는 그의 책 전체에 걸쳐서 구약학이 제기하는 세 가지 고전적인 문제들을 검토하며 숙고한다. 이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pp. 15-16).

1. 구약과 고대 근동 문헌: 왜 많은 곳에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웃 민족들의 문헌과 상당히 유사한가? 구약은 정말 유일한 것인가? 구약이 생성된 고대 세계를 단순히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성경은 고대 세계에 그렇게도 딱 들어맞는가?

2. 구약의 신학적 다양성: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구약의 어떤 본문들은 왜 서로 다르게 말하는가? 구약 안에는 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신약 기자들이 구약을 다루는 방식: 왜 신약 기자들은 구약을

그토록 이상하게 사용하는가? 그들은 구약을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첫번째 문제는 성경의 ‘유일성(unicqueness)’을 다루고 있으며, 두번째 문제는 성경의 ‘일관성(integrity)’에 관심이 있으며 이 점은 성경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 마지막 문제는 성경의 상호 ‘해석’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의 의미심장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저자의 진술이 한층 돋보이는 것은 저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난제 해설하듯 설명해 버리려고 한다기보다 오히려 이러한 문제들 앞에 스스로를 내어 놓으면서 성경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단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감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 쟁점은 성경에 대한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가 실제로 성경의 이곳저곳을 접할 때에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가이다.”(p. 17). 그에게 있어서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영감되었다.” 같은 고백들을 오늘의 현실 세계 안에서 어떻게 표현해낼지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이 문제들에 대해 접근하는 출발점으로 “성육신 유비(The Incarnational Analogy)”를 제안한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이었으면서 완전히 사람이셨듯이, 성경도 그러하다. 이제껏 교회 는 성경의 ‘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익히 강조해왔는데, 성경의 성경됨을 위해 뺄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성경의 ‘인간적’ 측면이다. 예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는 사고가 가현설로 정죄되었듯이, 성경의 인간적 측면을 무시하는 것은 이른바 “가현설적 성경관”인 셈이다. 성경이 그 당시의 일상 언어로 기록되었다는 점, 고대 근동의 다른 지역과 유사한 종교 제도를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 구약의 예언자들과 동일하게 고대 근동의 사회들에서도 이러한 예언자와 선견자들이 등장한다는 점, 고대 근동 국가들과 유사한 이스라엘의 왕정, 함무라비 법전 등 고대 근동의 법전들과 유사한 구약

의 법률 체제 등, 19세기 이래 밝혀진 구약과 근동 문헌과의 공통점은 이제는 구약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항들이라기보다는 구약 안에 나타난 성육신의 결과, 즉,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육신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p. 20)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인간적 특성은 문제가 아니라 선물”(p. 21)이다.

2. 세 가지 문제

이 책의 2장부터 4장까지는 위에 언급한 구약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저자 나름의 복음주의적 숙고를 다루고 있다. 우선 2장에서 저자는 20세기 이래 고대 근동 연구의 진전이 가져온 성과들을 검토한다. 이러한 성과들에 따르면, 구약의 많은 부분은 고대 근동의 문화와 수많은 접점을 지니고 있다. 그 예로, 천지창조 이야기를 담은 에누마 엘리쉬, 홍수 이야기를 담은 아트라하시스와 길가메쉬 서사시, 족장시대의 풍습을 보여주는 누지 문서, 오경의 법전과 유사한 체계를 담은 함무라비 법전을 비롯해서 히타이트 조약문, 텔단 비문, 실로암 터널 비문, 메사 비문, 아메네모페의 교훈까지 굵직굵직한 자료들이 언급되고 있다. 고대 근동의 자료들이 보여주는 구약과의 유사성은 궁극적으로 구약이 어떻게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실제로 성경의 권위에 대한 무수한 공격이 이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갈등은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의 다양성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 서로 달라 보이는 견해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단의 말에 대해 역대기와 사무엘의 진술이 다르다(pp. 64-66); 잠언과 전도서가 하나의 정경 안에 함께 들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구약 정경이 제시하는 다양성 문

제에 대한 입장을 볼 수 있다(pp. 74-82); 사무엘상, 하에서 열왕기 상, 하에 이르는 역사 서술은 역대기 상, 하와는 상당히 다른 안목을 반영하고 있다(pp. 82-85); 십계명 역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약간의 그렇지만 의미심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pp. 85-90), 그 외 여러 율법 조항들도 상호 간에 차이가 있는 사항들이 많다(pp. 90-97); 무엇보다도 구약성경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다른 것들은 우상에 불과하다고 확고히 전하는가 하면, 때로 많은 본문들은 여러 신들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pp. 97-102). 구약 성경의 이러한 다양성을 부각시키는 것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스럽게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러한 다양성 문제를 “설명해 버리려고” 시도한다.

이제껏 살펴본 고대 근동 문화의 유사성, 구약 내의 다양성 문제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대응은 수동적으로 성경의 권위를 보호하는데 급급했다고 할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주의 학자들 사이에서 보다 활발하고 진지한 논의들도 발전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성경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는 다가가지 않고 멈추어버리는 경향이 동반되곤 한다. “복음주의 학자들이 창세기나 다른 주제에 대해 일련의 논의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논리적 함의에 거의 다다랐다가도 다음 단계에서는 전통적이고 안전한 범주들로 물러나 버리는 것”(p. 47)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목격된다. 저자는 이러한 안전한 곳으로의 후퇴가 성경을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성경에 대한 스스로의 선입견의 수호임을 보인다. 저자의 날카로운 지적대로, 이러한 선입견들은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이나 수호하려는 사람 모두에게서 공히 발견되는 착각이며, 2장과 3장에서 저자는 깨져야 할 선입견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열거한다:

“성경이 문화 안에서 기록되었다는 특징은 하나님의 계시라는 정

의와 충돌된다(p. 4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정확해야 하며 그 배경에 있어서도 독특해야 한다(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실수하지 않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될 때, 이러한 유일함을 담아낼 특별한 형태가 필요하므로)(p. 47). 사실 관계와 신학적 메시지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양립 불가능하다(p. 73). ‘다양성은 혼돈이나 오류를 암시한다.’(p. 80),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내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다양성이 없어야 한다(p. 80). 즉, 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치 않아야 한다.”

이러한 선입견들과는 달리, 저자는 성경이 고대 근동 문화 안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의 권위를 위태롭게 한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드러내준다고 본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성경 계시의 성육신적 특징이라고 풀이한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다양성 역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인간 역사의 복잡한 드라마와 상응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일관성과 통일성으로부터 한걸음 물러나서 성경 자체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만들기도 한다(pp. 107-110).

그러면 저자에게 있어서 성경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메시지이다. 창세기의 많은 부분은 고대 근동 문화의 맥락 안에 놓여 있다. 그러나 창세기가 이를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아름다움 그리고 이 땅이 신들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메시지가 당대의 다른 신화들에 비해 참으로 급진적이었음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저자에게 있어서 다양한 성경을 하나로 묶어주는 통

일성은 무엇인가? 성육신의 유비로 풀어나가는 저자의 이제까지의 논리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에게 있어 성경의 통일성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습을 입은 하나님 의 말씀이다…기록된 말씀은 성육신하신 말씀인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단지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들 이 아니라 성경의 각 부분들의 산술적 총합보다 더 크신 성육신하신 말씀이다.”(p. 110)

이러한 논의는 이 책의 마지막 장인 신약 기자들의 구약 인용에 대한 문제로 이끈다. 신약 기자들의 구약 인용 방식은 언제나 만만치 않은 논쟁거리이다. 그들의 구약 인용은 때로 전혀 체계적이지 않아 보이며, 심지어 구약 본문 자체의 문맥과 맥락을 완전히 무시한 인용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신약 기자들의 구약 인용 방식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기본적으로 신약 기자들의 해석학적 태도를 오늘의 우리도 수용하고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는 “신약의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추어서(in the light of Christ’s coming) 구약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하였다.”(p. 116)라고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신약 기자들의 해석 방식-자신들이 기준으로 삼은 관점에 근거해 주어진 성경 본문의 해석을 맞추는 것은 어떤 새로운 방식이었다기보다 당대 즉, 제 2성전기 시대의 일반적인 해석 방식이었음을 이 시기의 여러 문헌들의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해석 방식은 오늘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 자의적으로 보일지라도, 당대의 청중들에게 있어서는 타당하고 합당한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오늘의 눈으로 보기에 역사적, 문법적 해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예수의 출애굽기 3장 6절 해석(눅 20:34-38)에 대해 당시 청중들이 깊이 동의했다는 것(눅 20:39-40)은 예수의 해석이 제 2성전기 해석 방식의 맥락 위에 있음을 입증한다는 것이다(p. 132). 저자는 사도들 역

시 이러한 해석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아울러 그들에게 전해진 풍성한 해석사적 전통들도 활용하고 있음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pp. 142-151).

3. 그리스도 목적적 해석

그렇다면 사도들의 해석의 독특성은 무엇인가? 이미 언급되었듯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런 점에서 사도들의 해석은 사실 객관적 주해(exegesis)라기 보다는 주관적 풀이(eisegesis)에 가까울 수 있음을 저자는 시인한다. 사도들은 구약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숙고를 통해 그리스도라는 진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확신하고 고백한 진리에서 출발하여 구약을 해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기존의 “기독교론적(christological or christocentric) 해석”이라는 말 대신 “그리스도 목적적(christotelic)” 해석이라는 이름을 선호한다. “구약을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 이야기와 말하고 있는 바의 종착점임을 이미 알면서 읽어간다는 것이다.”(p. 154)

저자의 최종적인 문제는 이러한 사도들의 해석을 오늘 우리가 따를 수 있는가이다. 이점에서도 저자는 손쉬운 길을 가지 않는다. 여러 난점에도 불구하고 신약 기자들의 구약 해석은 문법적 역사적 주해와 일치한다고 고집부리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취하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몇몇 ‘보수적’ 학자들의 손쉬운 길을 버리고, 저자는 사도적 해석학 가운데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아야 할 것들을 주의 깊게 구별할 것을 제안한다(pp. 157-158). 좀 더 세밀하게는 해석학적 목적과 해석학적 방법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는데, 구약을 해석하는 목적은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며, 해석학적 방법에 있

어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로서는 조심스럽게 역사적, 문법적 주해로 다루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마지막 5장은 이제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성경에 접근하는 보다 큰 그림을 제시한다. 저자는 성경을 해석해 가는 우리의 과정을 여행에 비유한다. 이 길에 때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으며, 눈앞에 등장한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등장할 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 길은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 길이다. 그러므로 이 길을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겸손, 사랑, 인내”이다(p. 172). 저자에게 있어서, 이미 답을 다 알고 길을 가는 사람의 오만함이나 이 길에 나타날 어떤 것을 모두 방지하려는 방어적 자세보다는 계속적인 “들음을 통한 배움”이 바로 성경 해석의 과정이다.

4. 오직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

이 책에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진지함과 신중함, 그리고 성경에 대한 열정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그저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고 고집스레 부르짖으면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성경을 스스로 보호하기에 급급한 오늘의 어떤 ‘보수주의자’들은 이 책에서 보건대 오히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의 능력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사람이 성경을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보호한다. 그래서 피터 엔스의 이 탁월한 책은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생생한 사랑의 표현으로 더욱 확신하게 하며 구약을 향한 우리의 모든 질문을 진지한 탐구로 바꾸어준다. 무엇보다도 그의 진지하고 열려있는 개방성은 이른바 ‘보수적’ 학자들과 ‘진보적’ 학자들 사이의 간격을 한층 좁힐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특히, 한국의 교회와 신학의 현실 안에서 그의 논의와 주장이 합의될 수 있다면 참으로 엄청난 연합과

동역이 가능해질 것이다.

설득력 있는 그의 논지를 따라가면 몇 가지 의문도 생긴다. 구약을 담고 있는 틀이 고대 근동의 문화라면,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과연 어느 것이 구약 당시의 문화를 담고 있으며 어느 것이 그 문화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메시지인지를 누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인가? 나단의 다윗에 대한 말씀이 역대기와 열왕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엔즈는 성경의 역사 서술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pp. 64-66). 오늘날 “객관적 역사서술”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은 널리 인정되는 점이다. 그래서 실제로 나단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한 그의 대답은 “모른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의 논리적 귀결은 만만치 않다. 나단에 관한 본문의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진술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 하나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가? 일관된 입장이라면 이 경우 역시 역사가의 역사서술의 관점이 반영되어 있기에, 실제의 사실을 알아낼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 더 일관될 경우, 사실 구약 성경에서 실제의 사실을 알아내는 어렵다로 가게 되지 않을까?

사도들이 당대의 해석 방법을 따라 구약을 해석하였다고 본다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현대의 방법으로 성경을 볼 것을 제시한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의 방법은 오직 ‘문법적 역사적 주해’만 상정되고 있다. 오늘날에 구약을 해석하는 방식이 과연 ‘문법적 역사적 주해’ 뿐인지는 논의의 여지가 크다.

그가 깨달은 대로, 구약이 당시 세계의 틀과 문화로 표현되었으되, 당대를 넘어서는 급진성을 지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가장 성경적인 사람은 그런 점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람일 수 밖에 없다. 우리가 가진 편견이나 제약에 구애되지 말고, 오직 성경으로 말하게 하라는 그의 명제는 참으로 타당하다.¹⁾

1) Peter Enns, *Inspiration and Incarn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5), 김구원 역, 『성육신의 관점에서 본 성경 영감설』 (서울: CLC, 2006). 김구원 목사의 탁월한 번역은 이 책을 더욱 독자와 가깝게 할 것이다.